주민쉼터 세운 자비 바이러스

신녕포교당, 릴레이 동참으로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개관

신녕포교당은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아 11월 7일 영천 신녕면 완전리에 청소년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했다.

한 스님이 이웃에 펼친 자비행을 시작으로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 지역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세웠다.

신녕포교당(주지 혜담)은 11월 7일 영천 신녕면 완전리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개관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죽림사 주지 법의 스님과 지역기관장, 후원자, 주민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개관한 청소년문화복지센터는 스님이 1년 여를 병수발한 이웃 할머니가 "부처님께 시주하겠다"며 마음을 내 마련된 부지 760㎡(230평)에 세워졌다.

할머니가 장성조 · 장재복 · 장종복 등 세 딸을 통해 부지를 기증하고 나자, 한미산업 신용범 대표, 진주수지 권영미 대표 등이 마음을 내 건축비와 시설물을 후원했다. 이들 지역 기업가들은 포교당을 찾았다가 혜담 스님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자비심이 발동했다.

혜담 스님은 "한 분이 (지역청소년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내니 그 주변 분들 가운데 하나, 둘씩 마음을 내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게이트볼 운동기구는 서울지검 이재홍 판사가, 밴드부 악기는 영천 중앙택시 권윤식 대표가 후원했다. 어린이 골프클럽 리츠건설 이호경 대표와 삼원주유소 · 휴게소 손두희 대표가, 어른 골프클럽세트는 은해사 부주지 태관 스님이 기증했다. 청소년문화복지센터 마당에 심어질 묘목은 하양새마을금고 전병근 전무가 어린이 도서는 신중 · 이상헌 · 박종기씨가 후원했다.

혜담 스님은 신녕포교당 주지로 부임한 2004년부터 지역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돌봐왔다.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방생법회 등을 하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 불우한 지역 청소년들의 급식비 지원 등 장학금도 정기적으로 전달해 왔다.

주지 혜담 스님에게 시작된 자비 바이러스는 농지를 청소년문화복지센터로 탈바꿈 시켰다.

청소년문화복지센터에 갖춰진 도서관, 세면장, 화장실, 조리실, 음악실, 골프연습실, 게이트볼장 등은 스님의 자비행이 이웃에 퍼지며 장엄된 것들이다.

청소년문화복지센터는 주말에는 어린이 청소년 위주 공간으로 활용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주중 일과시간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다도, 사군자, 게이트볼, 골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혜담 스님은 "수행자로서 살기 좋은 미래사회를 향해 작지만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을 실천해 왔다. 지역주민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비행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빨간 김치, 마음도 후끈"

3개 종단대표 등 '행복나눔' 김장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와 SK텔레콤은 11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종성 목사,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근상 주교 등 3개 종단 대표와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을 포함해 김형근 수도권마케팅본부장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담근 5만 4700포기의 김장김치는 5000여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하나의 먹을거리인 오늘 담그는 김치가 소외계층 가정에서 추운겨울을 따듯하게 나는 복으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추운 날씨에도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자비의 김장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는 이웃을 위한 따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정만원 SKT 사장이 담근 김치를 맛보며 밝게 웃고 있다.

자비의 배추나눔과 김장템플스테이

27~28일, 공주 마곡사서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11월 27~28일 경내에서 '자비의 배추나눔행사'와 '김장담그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자비의 배추나눔 행사에는 친환경 생태농장에서 길러진 5000여 포기의 배추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전달한다. 십시일반 나눔 통장을 통해 모인 금액으로 김장용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김장을 담가 무의탁 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에 보시할 예정이다.

또, 김장담그기 템플스테이는 가족단위로 참가해 김장을 담그는 자리이다. 참가비는 전액 어려운 이웃의 김장을 지원하는 곳에 사용된다. 4인 기준 10만원. (041)841-6221

조동섭기자

"다문화 역행하는 동화주의는 가라"

대중결사, 진오 스님 '이주민 포교' 강연

11월 8일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아카데미에서는 이주외국인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고민의 자리가 펼쳐졌다. 이날 이주외국인 포교를 주제로 발표한 진오 스님은 "외국인과 결혼이주민이 섞여 살고, 한국어를 배우고 잘한다고 해서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화정책은 절대 다문화가 아니다. 사회통합이수제(법무부가 2008년 6월 외국 이주민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적응을 돕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주의에 무게중심이 있다. 해외의 실패한 동화주의 정책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 과연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민과 의식수준이 있는가?"라며 "다른 나라 문화가 공유될 때, 그들의 문화가 수용될 때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가한 스님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을 활용하라는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진오 스님은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 불교권에서 스님을 초청하고 활용하면 이주민 복지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이주민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데, 자국출신 스님에 대한 존경과 정서적 친숙함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미 개신교계에는 몽골, 캄보디아, 중국인 전용 교회가 운영된 지 오래됐다"며 "종단 사회부가 공식적으로 각 국가 스님들을 초청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움직임은 더디다. 불쌍하다는 개념으로 돕는 이들도 있다. 때론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한국전통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 국가 프랑스는 이주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유는 프랑스 이주민 정책인 동화정책에 있다. 의식주는 변할 수 있지만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나 감정, 미묘한 생활태도는 동화정책으로써도 동화시키지 못한다. 이주민 지원은 왜 해야하는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때다.

이상언 기자 kemichino@gmail.com

승가대서 4년째 통성기도

한국 경범죄 처벌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계의 불교폄훼 행위에 실질적인 처벌수단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중앙승가대학 기숙사 뒤편에서 4년째 통성기도를 올린 한 목사는 경찰에 3만원 범칙금만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이 목사는 승가대 학생회와 약속한 공개사과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당 세신 감리교회 김병훈 목사가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은 10월 20일 새벽 4시. 이 목사는 승가대 뒤편 산에서 4년 동안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통성기도를 올려왔다.

중앙승가대 학생회 기획 · 재무담당 지상 스님은 "5월에는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를 진행했다. 승가대학 뒷산은 승가대 사유지지만 등산로와 정자는 시 소유로 개방돼있다. 김포시청에서 종교행위를 금한다는 표지를 붙였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신고를 50회 가량했는데 경찰에서는 단속한다고 해놓고 교회 측에 자제해달라는 얘기만을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훈방 조치에도 기도가 계속되자 스님들이 직접 나섰다. 학인 스님들은 10월 20일 목사의 기도소리에 직접 현장에 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소음공해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을 뿐이었다.

처벌법 및 방지법의 부재로 현재 전국에서는 불교폄훼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아름다운동행 기금 마련展

동국불교미술인회, 30일까지 나무갤러리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김의식)가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 기금 마련 전시회를 연다.

11월 17일 오후 5시 개막, 3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로비와 나무갤러리.

곽동해 김광현 김영희 박갑용 박찬수 서칠교 허길량씨 등 28명의 회원들은 회화, 공예, 사진, 조각 등 53점의 작품을 내놓았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동국대가 후원한다.

김의식 회장은 "나눔의 문화는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95년에도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마련전을 열어 8천만 원을 동국대에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2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12월 2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